

2018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9. 1. 9. (수) 10:00~12:3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1명 중 10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한재준(의장), 김성호(부의장), 이준행, 박남춘
 - 나. 직원대표 : 이계원, 김홍석
 - 다. 학생대표 : 서윤정
 - 라. 외 부 : 손인웅, 장유식, 박에스더
4. 불참자 : 정재훈
5. 자문 안건
 - 가. 2018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나. 2019학년도 자금예산(안)
6. 기타 안건
 - 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 대학평의위원회 신임 학생평의원 소개

- 학생평의원 : 서윤정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기 : 2019.1.1.~2019.12.31.)

2. 전 회의록 낭독

3. 자문 안건 : 2018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경영기획팀장이 2018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설명하다.

○ 자금예산서 개요의 적립금에서 건축기금을 특정목적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인가. 전용이 가능하다면 건축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도서관 리모델링에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건축 기금을 특정목적기금으로 전용하였는데 도서관의 사고 위험을 염려할 정도로 노후화 된 도서관 상황을 개선하는

<간서명> 의 장



데 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모금 기금을 진행하는데 계획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 같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각각의 기금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회의 의결을 통해 전용할 수 있다. 도서관 보수 공사로 2018년 본예산에 약 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보수 공사는 도서관 공사를 위한 기금모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017년 기말 기준으로 약 23억 8천만원이 모금활동을 통해서 모아졌다. 47억원의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부분 부족하였고 2018년도에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수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액 기부자가 많이 감소하였고 모금활동 실적이 목표치보다 미달하게 되었다. 부족한 재원을 기부금 외에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였지만 다른 재원으로 공사하는 부분은 아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이었던 47억원의 보수 공사를 현재 6억원 수준으로 줄인 상태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1층의 천장 보수 공사, 냉·난방 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공사로 배정하였으며 도서관 보수 공사는 겨울방학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진행하고 2019학년도 기부금 수입의 추이를 보고 재검토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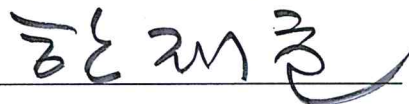
-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 감가상각 측면에서 볼 때 보수 수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건축기금을 전부 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비가 부족하다. 등록금 수입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530억원 수준이고 지출은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900억원 수준이다. 기부금이 증가하는 추세도 아니므로 그 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고사업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축기금을 전용하여 경상비로 사용한 것이며 남은 건축기금으로 도서관을 지을지 필요한 다른 기금으로 전용할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한다.

○ 도서관 리모델링 논의가 5년은 된 것 같다. 건축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도서관도 이미 우선순위를 두어서 다 끝났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기본 의무 아닌가. 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 도서관 건은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대학평의원회의의 자

<간서명> 의 장



문 의견은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 도서관은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이며 국고사업을 통해 스터디룸 등은 이미 잘 정비되어 있다. 현재 도서관 리모델링의 설계대로 한다면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행위가 학교에서 우선순위인지, 적절한 의사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네트워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내의 유휴 공간이 상당히 많으므로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것도 도서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장 원하는 것은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발이 시려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사실상 공부할 장소가 없다. 에이스사업에서 만든 세미나룸이나 스터디룸 등은 건물 출입의 제한이 있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험기간에도 너무 추워서 혹은 너무 더워서 공부할 수 없으며 이런 학습권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은 도서관의 보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학교 재정의 어려움과 우선순위에 대해 이해하고 도서관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편하고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에 대해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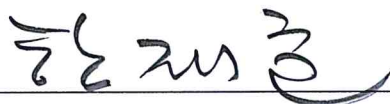
-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건물의 안전성과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냉·난방, 안전한 환경을 위주로 해서 점차적인 보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리모델링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6억원 공사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4. 자문 안건 : 2019학년도 자금예산(안)

경영기획팀장이 2019학년도 자금예산(안)을 설명하다.

○ 2019년 법인전출금은 6천만원인가. 적립금을 매년 인출하여 사용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최악의 조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참 우려스럽다. 법인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부담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대안은 없는가.

<간서명> 의 장



-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나 법인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은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법인에서 22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필요한데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21억 4천만원 정도를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부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법인에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을 남겨두고 학교에 진출하고 있으며, 기부금 모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법인의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법인 국장의 설명이나 법인의 답변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 다음 회의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에 대하여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문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모인 자리이므로 논의된 사항이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강조하여 말씀드리겠다.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은 언제부터인가. 한 번도 제대로 부담한 적이 없는가. 법인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담 한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실히 기록으로 남겨주고 법인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 달라.

○ 정문을 유지하기 위해 약 10억원이 나가야 하는가. 예전부터 왜 정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 2003년에 가각정리 공사를 할 때 문화재청 땅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청 땅을 제외할지 고민하였으나 포함하여 가각정리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정문 외곽의 왼쪽 잔디밭부터 펜스 일부분까지 해서 약 80여평 정도는 국가의 토지로서 과거에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 본교는 2004년부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매입을 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매각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처리하며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으며, 현재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 약 10억 4천만원이 필요하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지, 매입할지의 판단이 필요한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팔 수 있으며 정문 출입구 왼쪽을 제3자가 사용하게 된다. 학교의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매입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 매입하게 되면 집행해야 하므로 예산에 반영하였다.

<간서명> 의 장



○ 토지매입 시급성의 문제에서 제3자의 부적절한 사용이 염려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이겠으나 혹시라도 대학로 캠퍼스를 처분하면 이런 것을 매입하는데 사용 가능한가.

- 학교의 자산 처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육부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로 캠퍼스는 아람관과 다움관이 있는데 아람관은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세미나나 스터디 용도로 사용하고 다움관은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을 검토하였다. 법인에 정식 보고를 하기 전에 사전 논의 하였으나 매각보다는 활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어 보류되어 있다. 다시 한 번 다움관 매각 건을 제안하려고 하며 다움관은 약 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매각한 재원으로 정문 앞 토지를 매입할지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지는 차후의 문제이다.

○ 직제개편을 통해 산학협력단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2019년 수입에서 산학협력단 전입금을 보면 왜 줄어들고 있는가.

- 2018학년도에 신설된 산학기획팀에서 학교기업을 만들고 교수창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전문가 외부지원사업을 통해 변리사 1인을 채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들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작년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전출금 예산보다 실제 전출금이 더 많았다.

○ 여러 가지 자문내용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자문내용의 활용이나 답변을 받는 것을 절차화 하자는 것에 의원들이 동의하다. 대학평의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보고하기로 하다.

5. 기타 안건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기타 안건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설명하다. 2018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재상정 의결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및 자격) 및 제5조(위촉)에 대하여 타대와의 비교 자료와 함께 1안과 2안에 대해 설명하다.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및 자격), 제5조(위촉)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결과 1안으로 결정하다. 이에 현행 구성에 대학원생 1명(대학원 원

<간서명> 의 장



우회), 동문 대표 1명(총동창회)을 추가하여 총 13명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 대학평의원회에서 1차 심의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규정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6.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18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7.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2019년 2월 21일(목) 10시로 정하다.

의장이 12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9년 1월 9일

의 장 한 재 준

(서명)

부 의 장 김 성 호

(서명)

평 의 원 이 준 행

(서명)

평 의 원 박 남 춘

(서명)

평 의 원 이 계 원

(서명)

평 의 원 김 홍 석

(서명)

평 의 원 서 윤 정

(서명)

평 의 원 손 인 응

(서명)

평 의 원 장 유 식

(서명)

평 의 원 박 에 스 더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

기 록 김 근 아

(서명)

<간서명> 의 장 _____